

대한민국 최남단

가파도와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 속의 섬이다.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만나는 이 섬들은 아름다운 경치와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



마라도 |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-3 ~ 대정읍 가파리 580-3(약 2.2km)

가파로 |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26-1 ~ 대정읍 가파리 393-1(약 2.9km)

가파로67번길 |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61-1 ~ 대정읍 가파리 217(약 1km)

마라도 |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

마라도의 해안도로인 **마라도**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인 마라도를 한 바퀴 도는 길이다. 마라도에 가려면 모슬포항이나 송악산 아래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해야 한다. 푸른 바다를 가르며 30분 정도의 항해를 마치면 드디어 마라도에 도착한다. 과거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. 1883년에 이르러서야 몇몇 사람이 나라에 허가를 받고 밭을 일구며 섬에 머물 수 있었다. 마라도는 해안가를 따라 걸어서 한 시간 정도면 둘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다.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풍경과 가을이면 바람에 날리는 억새들의 정취가 마라도의 운치를 더해준다.



마라도

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마라도에는 애기엽개 전설이 전해온다. 옛날 마라도에 사람이 살기 전에 섬 주변에는 해산물이 풍부했다. 그래서 모슬포 해녀들은 이곳까지 배를 타고 와서 물질을 하곤 했다. 그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해녀들은 물질을 하러 마라도에 들어갔다. 그런데 갑자기 풍량이 거세져 꼼짝없이 섬에 갇히고 말았다. 며칠을 그렇게 섬 안에 있다보니 먹을 것도 점점 떨어져 이렇게 있다가는 모두 굶어죽을 판이었다. 그런데 그날 밤 상군해녀는 애기엽개를 섬에 두고 가면 무사히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. 그 얘기를 들은 해녀들은 모두 죽는 것보다 꿈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. 다음 날 날씨가 잠깐 갠 틈을 타 사람들은 모두 배에 올랐다.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엽개가 배에 오르려 하자 상군해녀는 바위 위에 걸려 있는 흰 형짚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. 애기엽개가 그것을 가지러 간 사이 배는 섬을 떠나고 말았다. 그렇게 애기엽개는 섬에 홀로 남겨졌고, 잔잔한 바람을 타고 사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.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마라도에 가보니 바위 위에 애기엽개의 뼈만 남아있었다. 사람들은 그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작은 당을 만들어 신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. 이 당이 현재 애기엽개당이라 불리는 곳이다.

애기엽개당이 해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라면 마라도 등대는 제주도 남쪽 바다를 지나는 배들의 길잡이다. 섬 동쪽에 있는 이 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. 마라도 등대는 오늘도 넓은 바다를 향해 불빛을 비추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.